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주요 결과 및 최근 3년간 동향

삶의질데이터센터장 허종호, 삶의질그룹 위촉연구원 최지선

요약 SUMMARY

- 국회미래연구원은 국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데이터 추적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 3년차인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실시함
- 코로나19 대유행의 2년이 지난 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시기였던 2022년의 평균적인 전반적 행복감은 6.53점임
- 22년에 새롭게 고려한 1인 가구의 비율을 보정하면 실제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더 하락하여 6.46점을 보임
- 전반적 행복감의 3개년도 추세를 살펴보면, 6.83(20년)→6.56(21년)→6.53점(22년)으로 3년 연속 행복 수준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가족 생활 관련 만족도를 제외하고 유데모니아 안녕감을 포함한 주관적 행복감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3년간 유의미하게 행복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 더욱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일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경향으로 나타나 행복에 대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 한국인의 평균적인 행복 수준을 향상시키고 행복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 및 정책적, 입법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음

PART

I

“한국인의 행복조사” 배경

○ 행복은 미래 한국사회의 핵심 키워드

- 물질적 부(富)만을 목표로 했던 개발성장 사회에서 질 높은 삶과 좋은 사회로의 전환이 미래 한국사회의 나아갈 방향임
- 일반적으로 행복 수준이 높은 개인 및 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바람직한 특성(예, 높은 건강수준, 높은 출산율, 높은 정치적 참여 및 이타적인 행동 등)을 보이며 이는 경제적 풍요로 성취할 수 없음

○ 한국은 경제 수준 대비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일 뿐만 아니라 국가내 행복 격차도 큰 나라임

-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발간된 2022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1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약 5.94점으로 150여 개국 중에서 59위에 위치함

○ 이에 국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민의 행복에 대한 데이터 추적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실시함

-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는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를 통해 ① 한국인의 행복 수준 및 불평등 크기를 추적하고, ② 다양한 사회 현상을 예측하며, ③ 행복 수준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을 밝히고, ④ 국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발굴하고자 함
 -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OECD 주관적 안녕감측정 가이드라인」 및 「UN 세계 행복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 측정에 초점을 맞춘 조사로, 심리 측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을 활용함
 - 아울러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안된 문항을 변경 없이 그대로 포함하였으며 번역과정에서의 인지적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지 면접과 전문가 자문을 거침
 - 아울러 행복의 결정 요인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인구학적, 경제적 변수와 함께 삶의 질(사회적 관계망, 건강 상태 등) 등을 포함한 풍부한 변수를 함께 측정하고 있음

PART
II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개요

○ 조사대상 및 실사

-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만 15세 이상의 일반 국민으로 본 조사의 표본들은 통계청 집계구를 활용함(2020년 6월 기준)
- 2022년 7월 1일 - 8월 25일까지 총 750개 집계구, 7,500가구를 목표로 조사 실시

○ 표본 추출

- 다단계 층화집락추출법을 활용하여 표본 추출(집계구: 확률비례크기계통추출, 가구: 무작위 추출, 가구원 수: 전수 추출)
- 조사 시 요일별 할당을 적용하여, 조사 당일의 '어제' 기준으로 '월-목' 응답을 약 57%, '금-일' 응답을 약 43% 비율로 수집하도록 고려
- 예비조사 등의 조사 준비 단계를 거쳐 태블릿PC를 활용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실시

○ 조사 완료된 표본 수 1만 7,045명(7,698가구)(월-목: 9,142명, 금-일: 7,903명)

- 완료된 표본을 바탕으로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계수 가중치, 벤치마킹 조정계수 가중치를 적용함
- 1인 가구수의 증가와 더불어 행복 수준에 있어서 1인 가구의 취약성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부터 1인 가구의 비율을 추가 사후보정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함



PART
III

2022년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및 3개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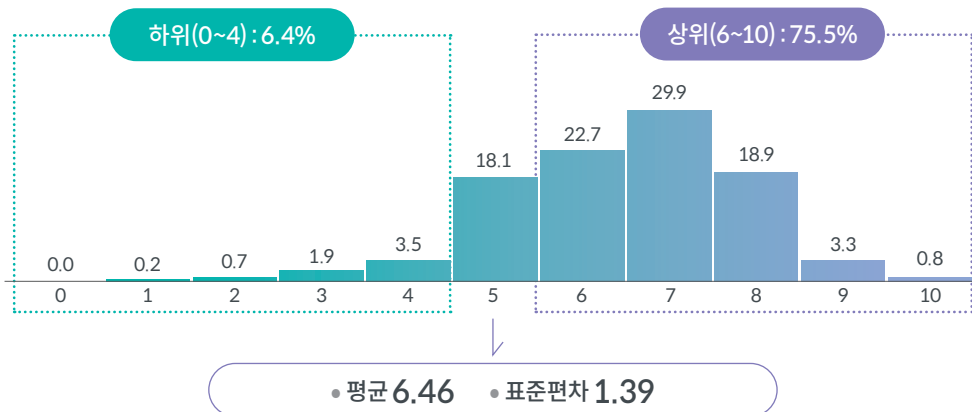
1 전반적 행복감: 6.53점(1인가구 비율 반영시 6.46점)

○ 전반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전반적 행복감 질문(0~10점)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6.53점임

- 응답자의 75.5%는 6점 이상으로, 응답자의 6.4%는 4점 이하로 응답함
- 22년에 새롭게 고려한 1인 가구의 비율을 보정하면 행복 수준은 더 하락하여 6.46점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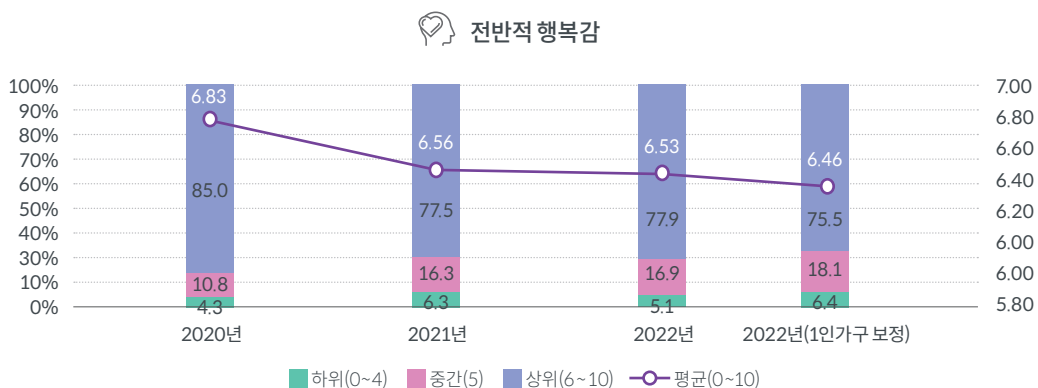
[그림 1] 전반적 행복감 설문 결과(2022년도)

n=17,045, 평균=0~10/단위:%, 점



○ 전반적 행복감의 3개년도 추세를 살펴보면, 6.83(20년)→6.56(21년)→6.53점(22년)으로 3년 연속 행복 수준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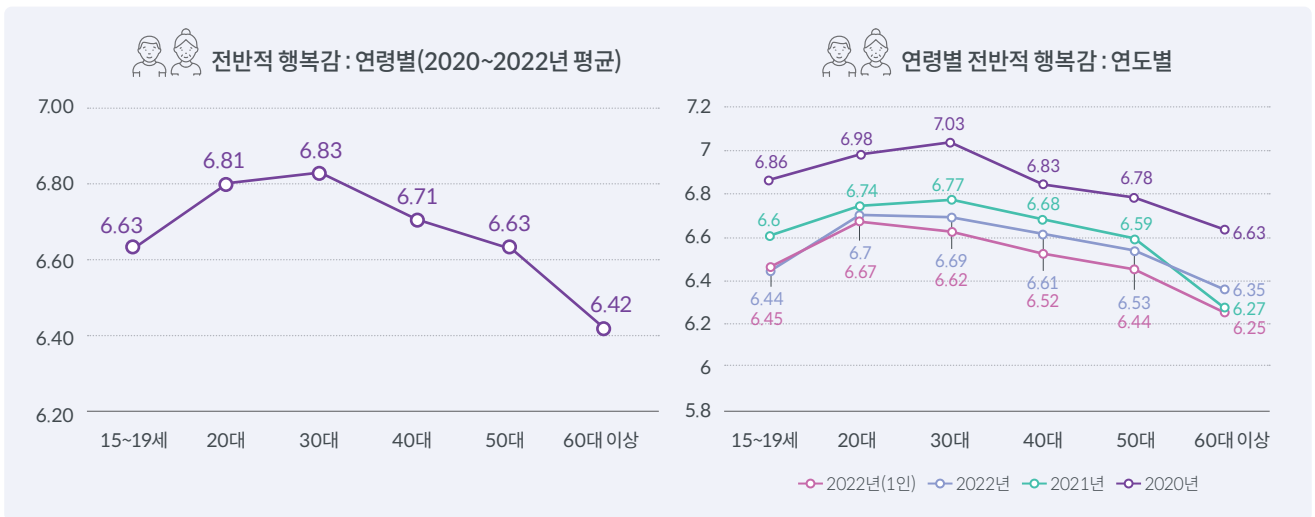
[그림 2] 3년간(20~22년)의 전반적 행복감 설문 결과



○ **연령에 따른 전반적 행복감의 변화는 한국 특유의 역U자형을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30대가 가장 높고 고령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보임**

- 30대가 3년 평균 6.8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20대로 6.81점을 보이는 반면, 40대 이상부터 하락하여 60대 이상은 6.42점으로 가장 낮음
 - 최근 3년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인 행복의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60대 이상의 경우 22년도에 하락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의 가중치를 적용하면,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30~50대의 하락세는 더 크게 나타남”

[그림 3] 연령대에 따른 3년간(20~22년)의 전반적 행복감의 추세 및 격차



○ **학력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행복감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3년간 모든 집단에서 행복 수준이 낮아짐**

- 3년 동안 집단 간 행복 수준 하락 격차도 달라서, 대재 이상의 하락폭이 평균 0.25점으로 가장 작고 고졸이 0.47점으로 하락 폭이 가장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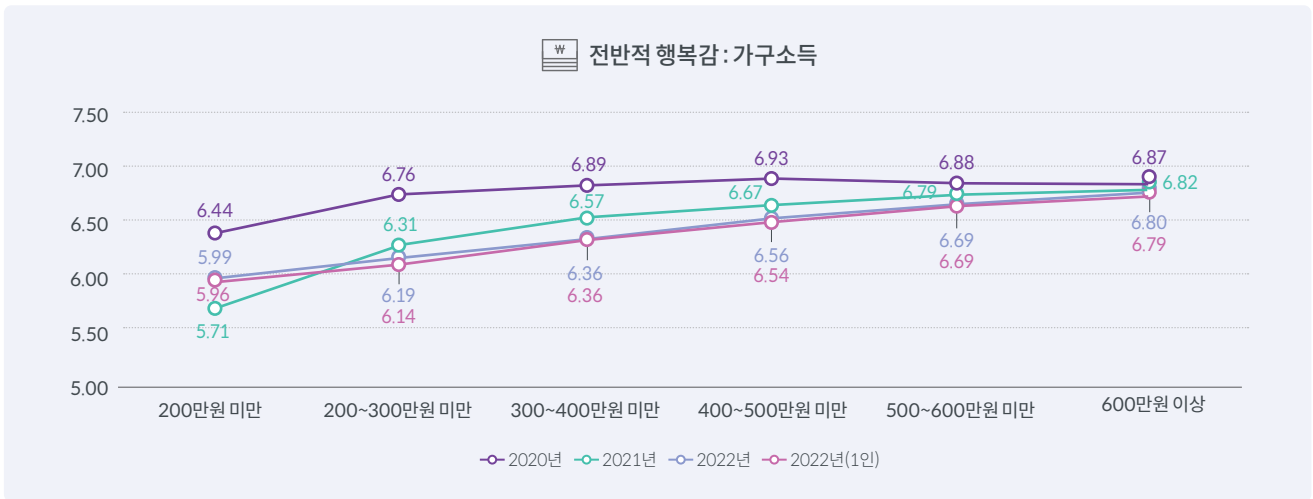
○ **직업 유무에 따른 전반적인 행복감도 3년간 감소 추세이나 무직 그룹의 경우, 20~21년의 하락폭이 컸던 반면 21~22년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음**

[그림 4] 학력과 직업 유무에 따른 3년간(20~22년)의 전반적 행복감의 추세 및 격차



- 가구소득에 따른 전반적 행복감은 가구소득에 따라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월 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그 이하의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패턴을 보임
 - 특히, 3년 동안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의 감소폭이 적은 반면, 소득이 낮을수록 감소폭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임

[그림 5]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3년간(20~22년)의 전반적 행복감의 추세 및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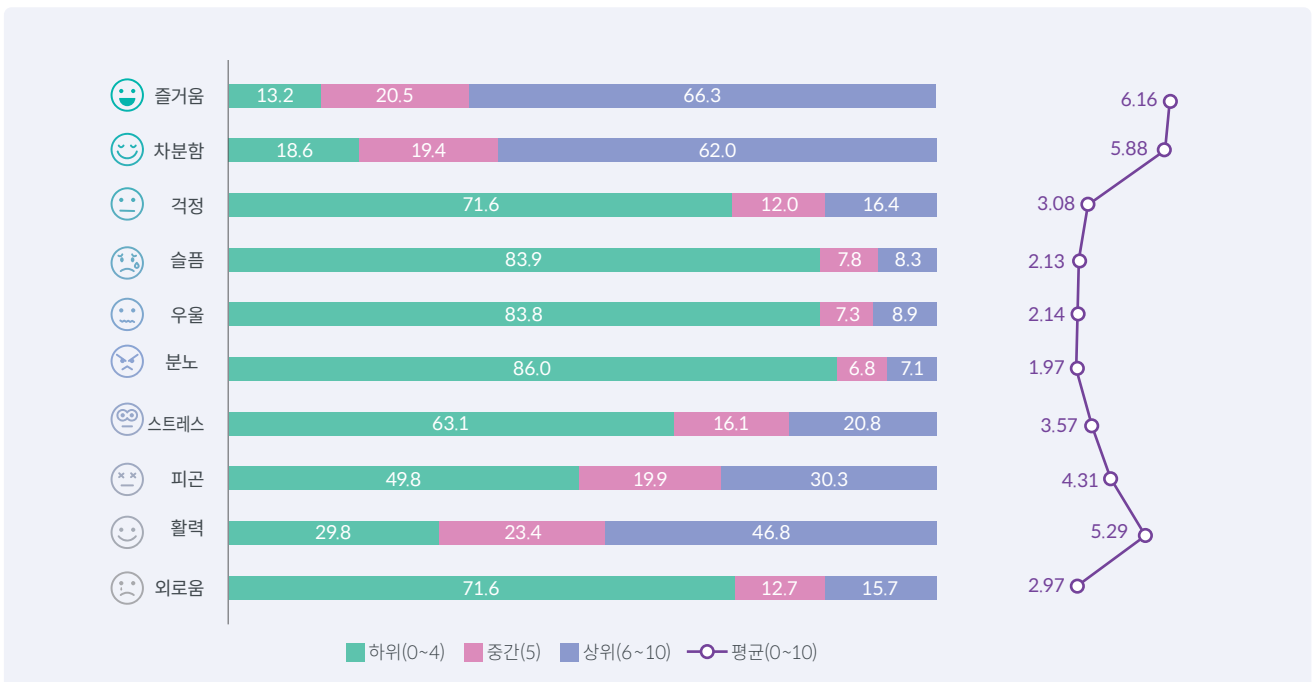


2 정서

- 어제¹⁾ 10가지 감정 각각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묻은 결과, 즐거움이 6.16점으로 가장 높고, 뒤이어 차분함(5.88 점), 활력(5.29점)순이며 우울(2.14점), 슬픔(2.13점)이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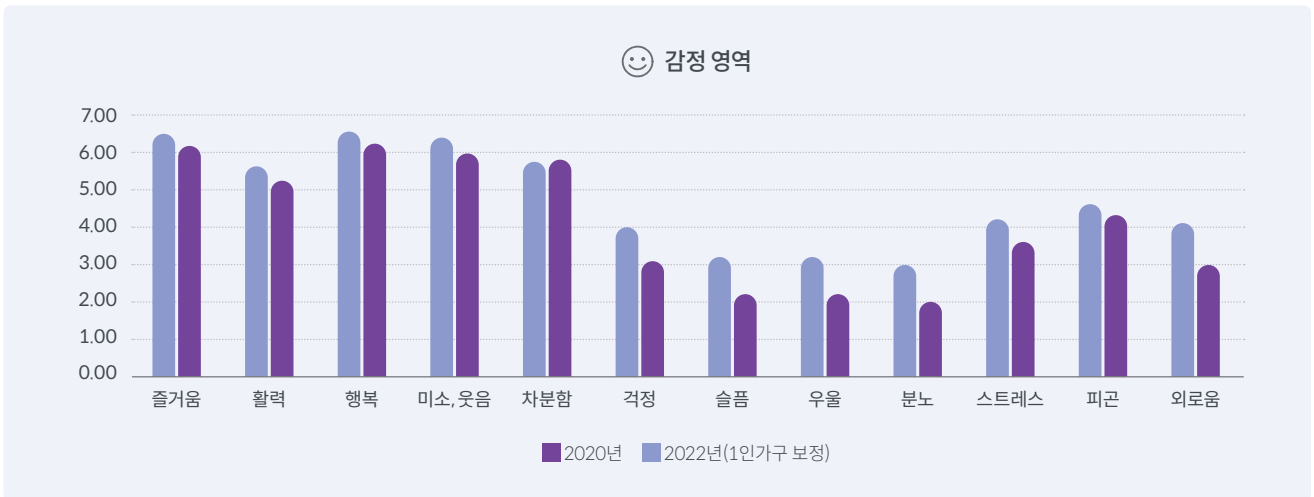
[그림 6] 어제의 감정에 대한 설문 결과(2022년도)

n=17,045, 평균=0~10 / 단위: %, 점



- 2020년과 비교하면 최근까지 감정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외로움(1.12점), 슬픔(1.03점), 분노(0.99점), 우울(0.97점) 등 부정정서가 더 많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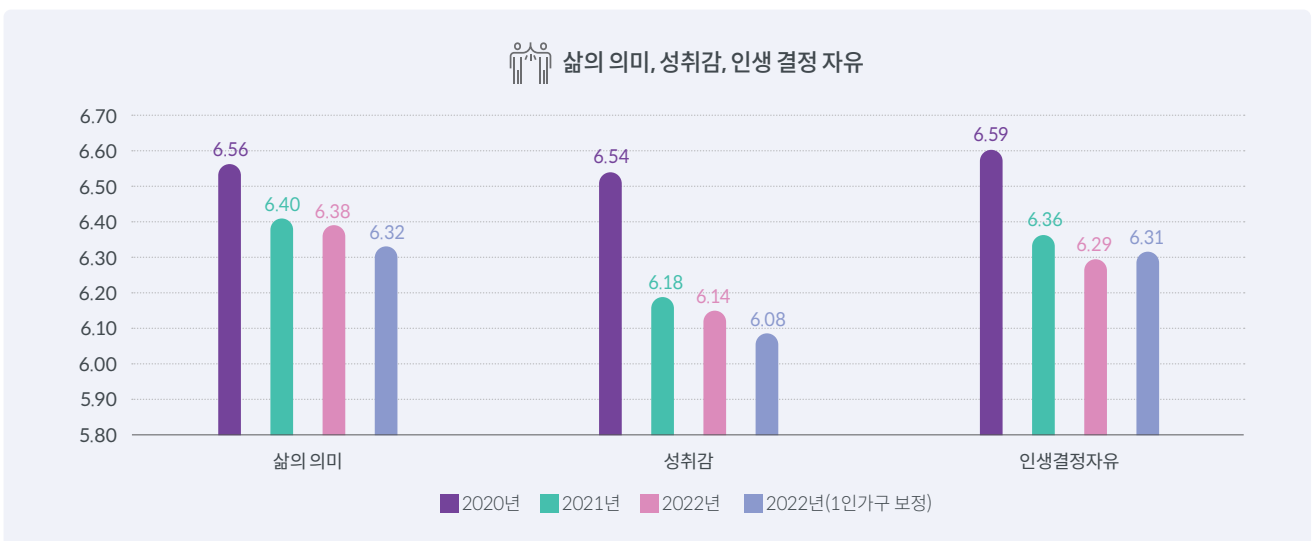
[그림 7] 어제의 감정에 대한 2020년, 2022년 결과와의 비교



3 유데모니아 안녕감 :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 삶의 의미(6.56→6.40→6.38점), 성취감(6.54→6.18→6.14점), 인생 결정 자유(6.59→6.36→6.29점)으로 3년간 모든 항목에서 행복 수치가 낮아짐

[그림 8]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문항에 대한 3년간(20~22년)의 추세



1) OECD의 「주관적 안녕감측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서의 경우 어제의 회상을 통해 측정함

4 영역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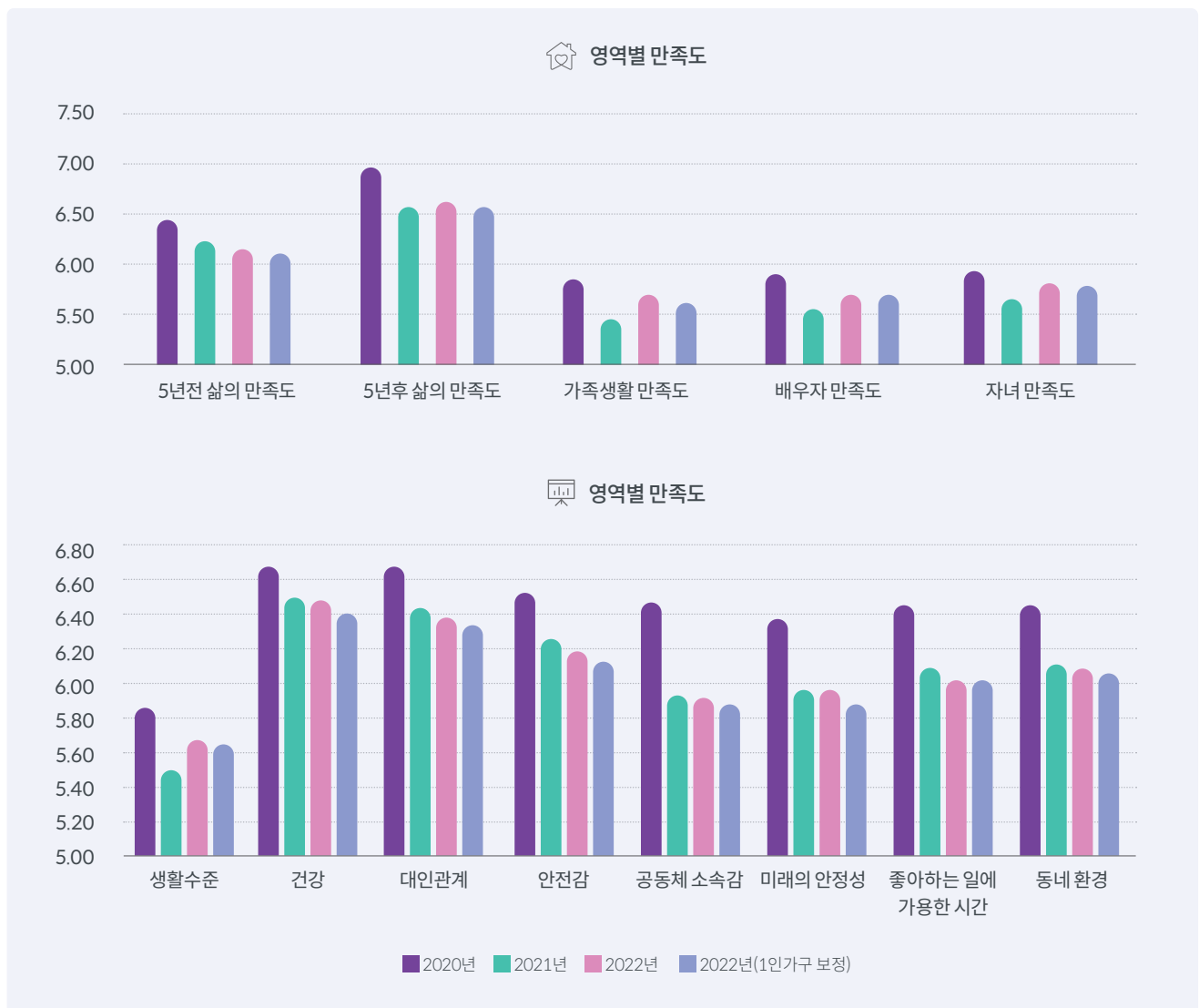
○ 22년도 조사 결과, 하락 추세이던 5년 후의 삶의 만족도 예측 응답 및 가족 관련 만족도가 상승함

- 5년 후의 삶의 만족도(6.96→6.54→6.64점) 및 가족생활 만족도(5.81→5.44→5.64점), 배우자 만족도(5.87→5.50→5.67점), 자녀 만족도(5.90→5.62→5.66점)는 상승함

○ 8가지 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생활 수준 영역을 제외하고 3개년 연속적 하락 추세를 보임

- 생활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5.87→5.50→5.67점으로 21년도에 비해 0.17점 상승함
- 3년간 가장 많이 하락한 영역은 공동체 소속감으로 0.56점 하락(6.47→5.93→5.91점)하였고 다음으로는 좋아하는 일에 가용한 시간(0.44점 하락)과 미래의 안정성(0.42점 하락)으로 나타남

[그림 9] 영역별 만족도 문항에 대한 3년간(20~22년)의 추세



PART
IV

결론 및 제언

- **코로나19 대유행의 2년을 지난 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시기였던 2022년의 평균적인 전반적 행복감은 6.53점임**
 - 22년에 새롭게 고려한 1인 가구의 비율을 보정하면 실제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더 하락하여 6.46점을 보임
- **전반적 행복감의 3개년 동향을 살펴보면, 6.83(20년)→6.56(21년)→6.53점(22년)으로 3년 연속 행복 수준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났으나 한국인의 행복감은 회복되지 못하여 대유행의 사회경제적 여파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가족 생활 관련 만족도를 제외하고 주관적 행복감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행복 수준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 코로나19 대유행의 회복 조짐은 가족 내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외의 사회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요인들은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음
- **더욱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일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경향으로 나타나 행복에 대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 질병의 대유행과 그에 따른 사회적 활동의 축소, 경제적 위축 등의 사건들의 여파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기간 또한 길어지고 있음
- **향후 행복 취약계층에 대한 심층 연구 및 정책적 개입 필요**
 - 한국인의 평균적인 행복 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행복의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입법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음
 - 「한국인의 행복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행복 수준에 대한 다양한 결정요인을 심층 분석하는 추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조사와 심층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삶의질데이터센터 소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 도래, 삶의 질 추구, 불평등 심화, 신종 감염병 등장 등 미래사회에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및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는 삶의질 및 행복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한 연구를 추진하고 입법부 중심의 독립적 증거 기반 중장기 정책·입법 지원하고자 설립되었다.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evidence-based policy making)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의 정치적 논란을 줄이고, 학계와 국회 사이의 간격을 좁혀 국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한국인의 행복조사 소개

사회적 지표로서의 행복은 국가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욕구와 국가의 정책 간의 ‘연결고리’로서, 선진국과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행복 수준을 측정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World Happiness Report 2021 기준 160여 개국 중 50위)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대한 심층연구와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왔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를 통해 ① 한국인의 행복 수준 및 불평등 크기를 추적하고, ② 다양한 사회 현상을 예측하며 ③ 행복 수준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을 밝히고, ④ 국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 발굴에 활용하고자 실시하여 왔다. 2020년을 시작으로 조사된 원데이터와 관련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자료원(<https://kossda.snu.ac.kr>)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